

학습 프로그램 수요 및 요구도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연구

최미순¹, 조혜영^{2*}

¹세한대학교 스포츠레저산업학과, ²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Learning Capability according to the Demand and the Degree of Demand of Learning Program

Mee Soon Choi¹, Hye Young Jo^{2*}

¹Dept. of sport leisure industry, Sehan University

²Dept. of Early-Childhood Education, Se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습 프로그램 수요 및 요구도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S대학교 재학 중인 1,738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정보구성능력, 자원 활용 및 자아인식, 자기개선 및 사회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정보구성능력,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정보구성능력,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학습의 어려운 점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정보구성능력,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향상시키고 싶은 학습 분야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구성능력과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량중심 학습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learning capability according to the demand of learning program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1,738 S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learning cap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arning programs,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organize information, resource utilization, self-awareness,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Seco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organize information, resource utilization, self-awareness,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in participating in learning programs. Thir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organize information, resource utilization, self-awareness,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in not participating in learning programs. Fourth,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organize information, resource utilization, self-awareness,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in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learning. Fifth, learning capabilities in specific areas that students wanted to improve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organize information, resource utilization, self-awareness. Howev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Keywords : CTL Learning Program, Demand, Degree of Demand, Learning Capability, Difference Verification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세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여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Jo(Sehan Univ.)

email: johyey@sehan.ac.kr

Received July 20, 2020

Revised August 28,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미래교육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역량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환경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1]. 즉,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학습수요자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학습역량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학습자의 학습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환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이미 많은 대학교에서는 CTL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매년 학습 프로그램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역량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는 학습자 성향 이외 학습의 환경적 맥락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2],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는 능동적 학습자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3].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인재상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습 경험은 리더십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4]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대학이 비교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Heckman, Stixrud와 Urzua[5]는 인지적 역량보다 비인지적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습역량은 학습 과정에서 획득하는 것으로[6] 대학생에게 학습 성과는 인지적 측면인 학업성취도 보다는 경험을 통한 학습 즉, 비인지적 측면에서 도출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소양과 태도, 역량 등의 정의적 측면을 의미한다[7,8]. 비교과 프로그램은 비인지적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9]. 이러한 경험학습은 과거 특정 재학생 즉, 도움이 필요한 소수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하여 보다 많은 재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0]. 대학교에서는 학습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 대학의 특성에 알맞은 학습역량을 도출하여[11-15] 이를 대학기 평가하는 등 학습의 성과를 측

정하고 있다.

이에 이미 많은 대학에서 학습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16]. 비교과 프로그램은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17],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제로 많은 연구들[18-21]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19-20] 대학생활 적응을 도모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22].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자기주도 학습역량은 학업성취에 순기능적으로 영향을 주며[23,24] 비교과 프로그램은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등 전공지식과 더불어 학습의 자율성이 증진됨이 밝혀진 바 있다[25]. 이에 멘토링 프로그램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향상시킨다[18].

지금까지 학습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역량 지표개발 연구[11, 12, 13, 14, 15]와 학습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18, 26] 등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로그램 수요 및 요구도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 스스로는 학업에 대한 역량의 변화추이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27] 이들의 학습 수요 및 요구도에 기반한 학습역량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시도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평가를 위해서는 전체집단의 평가를 통한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1]. 때문에 본 연구는 S대학교 CTL의 학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요 및 요구도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역량중심 학습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역량 강화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습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즉, 교육내용, 방법, 환경 등을 조성함에 따라 참여형 수업으로의 개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활용한 학습역량 평가 환류를 통해 학생 학습역량 질 관리를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는 S대학교 CTL 학습 프로그램 수요 및 요구도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연구를 통하여 역량기반 프로그램 기획 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학습문화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학습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학습의 어려운 점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향상시키고 싶은 학습 분야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S대학교 당진캠퍼스, 영암캠퍼스 재학생 1,738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의 결측값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rticipants

		Frequency	%	N
Gender	Male	884	52.2	1,695
	Female	811	47.8	
Campus	Dangjin Campus	880	50.7	1,736
	Yeongam Campus	856	49.3	
grader	freshman	554	33.3	1,664
	second-year student	481	28.9	
	third-year student	331	19.9	
	fourth-year student	298	17.9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884명(52.2%), 여자가 811명(47.8%)으로 비슷한 비율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캠퍼스 유형을 살펴보면, 당진캠퍼스는 880명(50.7%), 영암캠퍼스는 856명(49.3%)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554명(33.3%), 2학년 481명(28.9%)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1.1 학습역량

Kang와 그의 동료들[15]의 교육수행(EPI) 척도를 S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최미순과 그의 동료들[14]의 SH-EPI를 사용하였다. SH-EPI는 정보구성 능력(8문항),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10문항), 자기개선 및 사회성(15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교수역량 하위영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정보구성 능력 .951,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 .968, 자기개선 및 사회성 .940으로 모든 하위영역에서 .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습역량 전체는 .982로 높게 나타나 신뢰로운 척도라 해석할 수 있다.

2.1.2 학습지원 수요 및 요구도

학습지원 수요 및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습 프로그램 참여,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이유, 학습 프로그램 불참 이유, 학습의 어려운 점, 향상시키고 싶은 학습 분야로 조사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프로그램 참여는 '1개', '2-3개', '4-5개', '6개 이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이유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교수님, 동료학생 등)의 적극적인 권유와 지원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다른 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학습 프로그램 불참 이유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현재,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서)', '참여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 '다른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의 어려운 점은 '동기 및 전공 확신', '학습기술(공부하는 방법: 수업참여, 수업내용 이해, 시간관리 및 자기관리, 노트요약, 시험준비 등)', '발표력 및 관련 기법', '영어', '다른 외국어'로 구성하였다. 향상시키고 싶은 학습 분야로는 '동기 및 전공 확신', '학습기술(공부하는 방법: 수업참여, 수업내용 이해, 시간관리 및 자기관리, 노트요약, 시험준비 등)', '발표력 및 관련 기법', '영어', '다른 외국어'로 구성하였다. 본 도구는 질적변인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앞서 2019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재학생 10명과 교육학 박사 이상 2명에게 설문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이에 S대학교 CTL 프로그램 운영이 단계지원에서 역량중심 프로그램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보완하였다. 수정 후, 2차 내용 타당도를 받은 결과 응답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각 학과에 협조전을 발송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동의함에 서명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1,73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0.0을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M, SD, 왜도, 첨도)로 분석하였고, 변인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으로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3.1 학습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학습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및 첨도로 분석하였다. 왜도는 .334부터 .515범위이며, 첨도는 .874부터 3.018범위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정보구성능력 평균은 3.45점(SD=.647),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 평균은 3.44점(SD=.608), 자기개선 및 사회성 3.50점(SD=.640)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organize information	3.45	.647	.515	3.018
resource utilization and self-awareness	3.44	.608	.334	1.468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3.50	.640	.369	.874

3.2 학습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

학습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정보구성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F=3.137, p<.05$),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4.587, p<.01$),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1개 이상'과 '없음'으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3.655, p<.01$),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1개 이상'과 '없음'으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 learning cap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arning programs

	N	M	SD	SS	MS	F	p	Scheffe	
organize information	a	310	3.50	.627					
	b	429	3.50	.581					
	c	170	3.48	.615	5.119	1.280	3.137*	.014	-
	d	61	3.47	.666					
	e	649	3.38	.683					
resource utilization and self-awareness	a	310	3.51	.612					
	b	432	3.49	.554					
	c	172	3.51	.576	6.562	1.640	4.587**	.001	a>e
	d	61	3.53	.645					
	e	653	3.37	.620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a	303	3.59	.657					
	b	428	3.55	.613					
	c	170	3.52	.644	5.859	1.465	3.655**	.006	a>e
	d	62	3.55	.575					
	e	650	3.44	.637					

※ a=one, b=two to three, c=four to five, d=more than six, e=none
 ※※ * $p<.05$, ** $p<.01$

3.3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구성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473, p>.05$).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198, p>.05$).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053, p>.05$).

Table 4. learning capability according to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the learning program

	N	M	SD	SS	MS	F	p	Scheffe	
organize information	a	146	3.53	.681					
	b	216	3.51	.583					
	c	463	3.44	.604	2.294	.574	1.473	.208	-
	d	197	3.43	.650					
	e	85	3.36	.664					
resource utilization and self-awareness	a	148	3.50	.613					
	b	222	3.56	.567					
	c	464	3.45	.580	3.160	.790	2.198	.067	-
	d	196	3.43	.657					
	e	85	3.38	.626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a	148	3.62	.646					
	b	220	3.58	.566					
	c	457	3.50	.633	3.321	.830	2.053	.085	-
	d	195	3.47	.692					
	e	85	3.46	.671					

※ a=interested in the program
 b=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learning competency
 c=other people's(professor, colleague, etc.) active encouragement and support
 d=kind of program
 e=no comment

3.4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살펴보면, 정보구성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5.539, p<.001$),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5.774, p<.001$),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6.113, p<.001$),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언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서)',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 '참여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참조).

Table 5. learning capability according to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learning program

	N	M	SD	SS	MS	F	p	Scheffe	
organize information	a	334	3.49	.657					
	b	474	3.42	.610					
	c	258	3.33	.692	9.107	2.277	5.539***	.000	c<d
	d	406	3.54	.618					
	e	28	3.21	.790					
resource utilization and self-awareness	a	335	3.48	.617					
	b	475	3.42	.577					
	c	261	3.33	.587	8.139	2.035	5.774***	.000	c<d
	d	407	3.53	.585					
	e	30	3.23	.745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a	333	3.57	.628					
	b	468	3.45	.605					
	c	258	3.39	.623	9.493	2.373	6.113***	.000	c<a, c<d
	d	405	3.59	.620					
	e	30	3.40	.854					

※ a=I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b=I don't have any interesting program to participate in.
 c=I'm not interested in developing learning competency.
 d=time is not right
 e=no comment
 ※※ *** $p<.001$

3.5 학습의 어려운 점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

학습의 어려운 점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구성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F=2.533, p<.05$),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3.204, p<.05$),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기술(공부하는 방법: 수업참여, 수업내용 이해, 시간관리 및 자기관리, 노트요약, 시험준비 등)'과 '영어'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3.817, p<.01$),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기술(공부하는 방법: 수업참여, 수업내용 이해, 시간관리 및 자기관리, 노트요약, 시험준비 등)'과 '영어', '발표력 및 관련 기법'과 '영어'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6>> 참조).

Table 6. learning capability according to difficulties in learning

	N	M	SD	SS	MS	F	p	Scheffe	
organize information	a	422	3.46	.646					
	b	469	3.40	.578					
	c	285	3.43	.617	3.985	.996	2.533*	.039	-
	d	360	3.53	.662					
	e	34	3.56	.736					
resource utilization and self-awareness	a	424	3.45	.625					
	b	472	3.41	.559					
	c	291	3.42	.589	4.563	1.141	3.204*	.012	b<d
	d	359	3.55	.602					
	e	34	3.46	.738					
self-improvement and sociality	a	416	3.50	.628					
	b	471	3.48	.582					
	c	290	3.46	.640	6.103	1.526	3.817**	.004	b<d, c<d
	d	355	3.62	.672					
	e	34	3.61	.831					

※ a=motivation and major confidence
 b=learning skill(study method, participation in class,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s, time management and self management, note summary, preparation for examination etc.)
 c=presentation ability and related techniques
 d=english
 e=no comment
 ※※ * $p<.05$, ** $p<.01$

3.6 향상시키고 싶은 학습 분야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

향상시키고 싶은 학습 분야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7. learning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learning areas that they want to improve

	N	M	SD	SS	MS	F	p	Scheffe	
organize informatio n	a	356	3.41	.615					
	b	432	3.46	.617					
	c	289	3.46	.643	1.725	.431	1.136	.338	-
	d	460	3.48	.599					
	e	35	3.60	.628					
resource utilization and self- awareness	a	357	3.40	.582					
	b	431	3.47	.596					
	c	294	3.45	.620	2.952	.738	2.143	.073	-
	d	462	3.48	.560					
	e	35	3.66	.578					
self-improv ement and sociality	a	359	3.43	.618					
	b	429	3.55	.588					
	c	288	3.49	.630	7.567	1.892	4.972**	.001	a<e
	d	456	3.57	.626					
	e	34	3.84	.725					

※ a=motivation and major confidence
 b=learning skill(study method, participation in class, understanding of class contents, time management and self management, note summary, preparation for examination etc.)
 c=presentation ability and related techniques
 d=english
 e=no comment
 ※※ ** $p<.01$

정보구성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136, p>.05$).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143, p>.05$).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4.972, p<.01$),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동기 및 전공 확신’과 ‘의견 없음’으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대학교 CTL 학습 프로그램 수요 및 요구도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연구를 통하여 역량기반 프로그램 기획 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학습문화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구성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1개 이상’과 ‘없음’으로 응답한 재학

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1개 이상’과 ‘없음’으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TL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횟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최미순과 그의 동료들[19] 과 최미순과 조혜영[20] 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습[19, 17, 20, 21] 심리·정서[9], 직무[28] 등을 발달시키고, 궁극적으로 대학생활 적응[21]을 도모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재학생들이 비교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생 서포터즈단 운영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하다. 학생 서포터즈단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홍보팀을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구성능력,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습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등을 이해시킨다면 학습참여 동기를 더욱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학습자의 자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핵심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영역으로 나타났다[29].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공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신장시켜주기 위해 전공기초, 심화, 활용 특강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 학기제 프로그램과의 병행으로 경험과 학습내용을 관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과 연계된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검사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학습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구성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

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언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서)’, ‘학습역량 개발에 관심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 ‘참여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S대학교 비교과 블록시간에 대한 점검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면적 졸업인증제 안정화에 따른 비교과 블록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타 대학의 경우 ‘대학공통기준+학과졸업기준+ α ’로 구성하고 있다. S대학교는 20학년부터 다면적 졸업인증제를 위한 시범운을 시작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비교과 블록시간을 정규시간 외 별도로 배정하여 비교과 프로그램(α)을 피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과의 보강 및 정규수업을 배정해 놓아 특정 학과가 비교과 활동에서 열외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수업시간과 겹침, 개인적 일정 때문에)’ 등과 같이 대학 관리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의 어려운 점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구성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증에서는 ‘학습기술(공부하는 방법: 수업참여, 수업내용 이해, 시간관리 및 자기관리, 노트요약, 시험준비 등)’과 ‘영어’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습기술(공부하는 방법: 수업참여, 수업내용 이해, 시간관리 및 자기관리, 노트요약, 시험준비 등)’과 ‘영어’, ‘발표력 및 관련 기법’과 ‘영어’로 응답한 재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대학교 재학생들은 영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외국어 지원이 필요하다. S대학교는 공자아카데미, LCP(living college program) 등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 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해 줌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때문에 각 센터(부처)의 강점을 서로 보충함으로써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향상시키고 싶은 학습 분야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구성능력과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기개선 및 사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역량의 정보구성 능력과 자원활용 및 자아인식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학습역량 지표와 학습역량 프로그램의 매핑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프로그램과 학습역량 간의 1:1 매칭보다는 프로그램과 가장 관련 있는 역량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의 복수 역량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가치비중을 판단한다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cheffe를 통한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의견 없음’이 ‘동기 및 전공 확신’이라 응답한 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없음’이라고 응답한 재학생에 대한 전공 및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 전공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재학생 학습역량 수요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참여형 프로그램 또는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상기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상호작용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30] 또래와의 관계는 사회적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31]. 따라서 협동학습, 학습공동체 등 프로젝트 기반의 소집단 프로그램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밝혀진바 있으므로[32]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역량중심 학습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역량 강화 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결과를 활용한 학습역량 평가 환류를 통해 학생 학습역량 질 관리를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S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지역사회 대학 간의

프로그램을 통한 타 대학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예컨대, 사례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사례에 기반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때문에 사례분석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더욱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질적연구와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

References

- [1] OECD (2001). Investing competency for all communique. Meeting of OECD educational ministers. Paris: OECD.
- [2] B. Gray, "Strong opposition: Frame-based resistance to collaboration",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Psychology*, Vol.14, No.3, pp.166-176. May 2004. DOI: <https://doi.org/10.1002/casp.773>
- [3] M. Gibbons, *The self-directed learning handbook: Challenging adolescent students to excel*.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2002. Available From: <http://staffnew.uny.ac.id/upload/132326892/pendidik%20an/maurice-gibbons-self-directed-learning-handbook-challenging-adolescent-students-excel-jossey-bass-20.pdf> (accessed June. 22, 2020)
- [4] E. T. Pascarella, & P.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John. Wiley and Sons, 2005.
- [5] J. J. Heckman, J. Stixrud, & S. Urzua,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24, No.3, pp.41-482. Spring 2006. DOI: <http://dx.doi.org/10.1086/504455>
- [6] D. Leutner & E. Klieme, "Assessment of competencies", *Zeitschrift für Psychologie/Journal of Psychology*, Vol.216, No.2, pp.60-73. February 2008. DOI: <https://doi.org/10.1027/0044-3409.216.2.60>
- [7] D. Nusche, *Assessment of learning outcomes in higher education: Comparative review of selected practices*. Paris: OECD Publications, 2007. DOI: <https://doi.org/10.1787/19939019>
- [8] R. J. Shavelson, & L. Huang, "Responding responsibly. Chang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Vol.35, No.1, pp.10-19. March 2003. DOI: <https://doi.org/10.1080/00091380309604739>
- [9] R. A. Bakoban, & S. A. Aljarallah,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Statistical stud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Vol.10, No.20, pp.2737-2744. October 2015. DOI: <https://doi.org/10.5897/ERR2015.2436>
- [10] M. Morgan, "The evolution of student services in the UK", *Perspectives: Policy and Practice in Higher Education*, Vol.16, No.3, pp.77-84. August 2012. DOI: <https://doi.org/10.1080/13603108.2011.652990>
- [11] Y. S. Noh, & S. S. Lee, "A study on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instrument for diagnosing th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A case study of D women's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15, No.3, pp.273-305. August 2013. DOI: <https://doi.org/10.18211/kihrdq.2013.15.3.011>
- [12] E. M. Sung, S. H. Jin, & G. H. Kim,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ment tools for Korean youth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3, pp.219-256. August 2016.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6.27.3.219>
- [13] H. K. Y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competency scale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12, No.1, pp.29-64. Aprile 2016.
- [14] M. S. Coi, H. Y. Jo, & H. Y. Yi,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educational performance indicator for new millennium learners: Focusing on S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309-335. February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3.309>
- [15] M. Kang, H. Heo, I. Jo, J. Shin, & J. Seo, "Developing an educational performance indicator for new millennium learners",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Vol.43, No.2, pp.157-170. December 2010. DOI: <http://dx.doi.org/10.1080/15391523.2010.10782567>
- [16] T. Nunan, *Student support as a factor affecting the quality of Australian distance education*. Victoria, Australia. ERIC ED, 355, 419. November 1992.
- [17] F. C. Lunenburg,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ing*, Vol.1, No.1, pp.1-4. September 2010.
- [18] J. M. Lee, & G. J. Lee,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5, No.3, pp.133-153. August 2017.
- [19] M. S. Choi, D. S. Park, & H. Y. J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 university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sense of communit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experience of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s circle activit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 pp.491-510. January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1.491>
- [20] M. S. Choi, & H. Y. J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 learning,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S university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s of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6, pp.701-720. August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16.701>

- [21] E. Massoni, "Positive effects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on students", *Essai*, Vol.9, No.1, pp.83-87. 2011.
- [22] A. M. White, & C. T. Gager, "Idle hands and empty pockets? Youth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status", *Youth and Society*, Vol.39, No.1, pp.75-111. July 2007.
DOI: <http://dx.doi.org/10.1177/0044118X06296906>
- [23] L. V. Morris, S. Wu, & C. Finnegan, "Predicting retention in online general education courses",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Vol.19, No.1, pp.23-36. March 2005.
DOI: http://dx.doi.org/10.1207/s15389286ajde1901_3
- [24] P. R. Pintrich, & E. V. De 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1, pp.33-40. March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82.1.33>
- [25] J. C. Dunlap,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efficacy: How a capstone course prepares students for a profess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Vol.53, No.1, pp.65-83. March 2005.
DOI: <http://dx.doi.org/10.1007/BF02504858>
- [26] Y. S. Song, & K. H. Lee, "Effect of experience taking a creativity class on creativity and cognitive learning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Vol.2, No.2, pp.73-88. December 2012.
- [27] D. J. Hacker, L. Bol, D. D. Horgan, & E. A. Rakow, "Test prediction and performance in a classroom con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2, No.1, pp.160-170. March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92.1.160>
- [28] J. Wood, S. Little, L. Goldring, & L. Jenkins, "The confidence to do things that I know nothing about-kills development through extracurricular inquiry activity", *Journal of Learning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Vol.3, pp.2-21. March 2011.
- [29] C. N. Park, & W. H. Chung, "Study on the effects of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influenc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1, pp.39-71. February 2017.
- [30] T. L. Parcel, & M. J. Dufur,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Effects on chil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3, No.1, 32-47. February 2001.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1.00032.x>
- [31] S. Nichols, "Norms with feeling: Towards a psychological account of moral judgment", *Cognition*, Vol.84, No.2, pp.221-236. June 2002.
DOI: [http://dx.doi.org/10.1016/S0010-0277\(02\)00048-3](http://dx.doi.org/10.1016/S0010-0277(02)00048-3)
- [32] Kuh, G. D. (2008). Excerpt from high-impact educational practices: What they are, who has access

to them, and why they matter.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최 미 순(Mee-Soon Choi)

[정회원]



- 1997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관리전공 (경영학석사)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관리전공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스포츠레저산업학과 교수
- 2019년 2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창의융합교육혁신원장

<관심분야>

혁신교수법(디자인씹킹), 역량중심 교육과정, 융합교육

조 혜 영(Hye-Young Jo)

[정회원]



-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2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9년 2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관심분야>

교수-학습 역량, 혁신교수법, 비교과 통합관리